

가족과 BIC의 제안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웃고 있었다.

이어서 처남과 그의 아내가 보였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치아에서 아내들과 함께 온 아들들이 있었다. 모두 역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곁에는 딸이 서 있었다.

웃지 않는 사람은 그녀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마치 내가 내 집의 손님인 것처럼. 그리고 커피를 가져다주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도박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이미 행운을 안고 태어났다.

10분쯤 지났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인터폰이 울렸다.

Giorgia가 받더니 엄마 쪽으로 돌아섰다.

“그 사람이야. 벌써 왔어.”

우리는 1층에 살고 있었기에, 건물 현관문이 열리자 내 후각이 익숙한 향수 냄새를 알아챘다.

나는 그 향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여기에?

그녀는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그냥 ciao 하고 인사했다.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불과 몇 초 뒤 나는 확인을 받았다.

“안녕, Nando. 내 편지 받았어요? 호텔 계산서는 냈어요? 기억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방 안에는 내가 어떤 장례식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어쩌면 아주 잠깐 더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아내는 나에게 진정하고, 긴장을 풀고, 들으라고 했다.

“당신은 Chanel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요.

당신은 그녀가 중개인이라고, 프랑스인 동료라고, 파리에서 당신과 여섯 명의 주주와 동행한 여자라고, 당신을 위해 연줄을 만들어 주고,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고, 은밀하게 당신을 도발했지만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몰라요.”

젠장,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내 주위에 도대체 어떤 각본을 써 놓은 걸까?

“그녀는 최대 주주의 딸이에요. 당신이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눈 그 부인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죠.

그녀는 내내 뒤에 물러나 있었어요.

지켜봤어요.

들었어요.

그녀는 예비 병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냈어요.

일곱 번째 카드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들이 당신에게 한 믿을 수 없는 제안.

당신의 거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다:

"나는 Chanel에게 설명했어요. 결혼한 지 33년이 지나도록 나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당신은 고집 세고, 까다롭고, 가끔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또한 성품과 원칙을 지닌 남자예요.

돈은 한 번도 당신의 문제였던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 프로젝트를 길모퉁이 신문 가판대 주인에게 팔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을 위해 Amazon보다 더 많이 내거든요. 그가 Bezos와 친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모두가 웃었다.

모임이 끝나고 Chanel이 문 쪽으로 가다가 한 번 더 돌아섰다.

"말해 봐요, Nando.

왜 파리에서 경호팀을 따돌리고 당신이 어디 묵는지 우리가 끝내 알지 못하게 했어요? 더구나 당신 이름은 프랑스의 어떤 호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는 일곱 명의 여자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했어요.

그들이 나의 약점이니까요.”

Ferdinando